



## 1960년대 VUNC(유엔군총사령부방송) 프로그램과 청취 양상\*

김영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책임연구원 properk@hanmail.net

이 연구는 미 극동사령부 심리전부대가 한반도를 대상으로 운영한 심리전 방송이었던 VUNC(유엔군총사령부방송)의 1960년대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 및 청취자의 청취양상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60년대 VUNC 프로그램은 심리전 방송 목표에 맞춰 뉴스, 뉴스에 대한 해설, 음악프로그램 및 특집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오키나와 기지국, 일본파견대 및 한국파견대에서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은 한국 파견대로 모아져 서울 기지국, 강화도와 철원에서 송출했다. 북한의 경우 군과 민간인 엘리트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VUNC를 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엘리트층과 젊은이들 중심으로 청취자 집단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런 청취자 집단은 VUNC가 목표로 설정한 남한 대상 수용자의 범위와 대부분 일치한다는 점에서 남한을 대상으로 한 VUNC의 방송 목표는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960년대 한국 사회에서 VUNC는 미국의 심리전 정책과 자유민주주의 및 반공이데올로기를 전하고, 서양 대중음악과 클래식을 보급한 방송매체였다.

**KEYWORDS** VUNC(유엔군총사령부방송) • 프로그램 • 편성 • 남북한 VUNC청취자 • 1960년대

---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0-32A-B00267).

## 1. 머리말

유엔군총사령부방송(Voice of United Nations Command 이하 VUNC 를 사용함)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50년 6월 27일 도쿄의 맥아더 사령부가 설치하고, 휴전 이후 1971년 6월30일까지 미 극동 심리전 부대가 운영한 세계적으로 그 사례가 드문 냉전기 심리전 방송이었다. 이 방송을 1950년대와 1960년대 한국의 엘리트와 젊은이들이 즐겨들었다. 1968년 서울 등 4개 도시에서 이들 집단 1,623명을 대상으로 미국 공보원이 미국의 라디오방송 청취에 대해 실시한 인터뷰 조사에서 VOA, AFKN, VUNC를 ‘거의 매일 듣는다’는 답변이 각각 25%, 23%, 14%로 조사되었고, 특히 조사 대상 대학생의 41%가 VUNC를 일상적으로 듣는다고 답변했다.<sup>1</sup> 1960년대 서울의 VUNC 사서함은 매주 VUNC에 음악을 신청하는 1,000장 이상의 우편물을 받았다고 한다.<sup>2</sup> 1950년대 국영인 중앙라디오방송(HLKA)과 1954년 설립된 기독교방송(HLKY) 두 방송만이 있던 시절 미군방송이나 미국이 제공한 프로그램들이 국내 프로그램보다 수준이 높다고 인식되었기 때문에 대중문화의 보급창구로서 미국방송의 영향력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정일준, 2003; 『경향신문』, 1983. 2. 5. 1). 1960년대는 문화방송, 동아방송, 동양방송 등 민간 상업방송이 다수 출현하면서 국내 방송 프로그램 청취가 크게 늘기 시작했지만, 1960년대까지 여전히 한국의 엘리트들과 젊은이들 가운데 미국이 송출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일상적으로 청취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VUNC 프로그램 가운데 1969년까지 14년간 방송된 <북한으로 보내는 편지>는 북한에 부모형제를 두고 온 월남 동포들이 직접 육성을 통

---

<sup>1</sup> Records of Research Projects, East Asia, 1963-73, Project: Mediakor(RG 306).

<sup>2</sup> SECRET VOICE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VUNC), General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State, Subject Files of the Office of Korean Affairs, 1966-1974 (RG59 Lot File 73D360, Box4(5 of 10). p. 5.

해 북한의 부모형제의 안부를 묻는 프로그램으로 인기가 있었다(『조선일보』, 1971. 6. 16; 『경향신문』, 1971. 6. 16). 1950~1960년대 음악을 즐겨 들던 사람들에게는 VUNC의 서양 클래식음악 프로그램 〈음악의 향연〉이 큰 인기였다(이건용, 1986, 134~135쪽). 또한 1960년대 매일 오후 5시부터 1시간 동안(반복 밤 7시, 새벽 1시) 진행된 〈퍼스트 쇼〉라는 팝송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어, 여성 DJ가 젊은 학생층의 우상이었다고 한다(『경향신문』, 1967. 5. 27. 8).

이런 여러 현상에서 알 수 있듯이 1950년대와 1960년대 한국의 라디오 청취자들에게 VUNC가 갖는 의미가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런 점들에 주목하여 대표적인 냉전기 심리전 방송인 VUNC의 프로그램 편성과 청취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는 한국사회에서 라디오수신기가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보급되어 라디오가 가장 대중적인 매체로 성장한 기간이다(김영희, 2009, 312~314쪽). 이에 따라 라디오를 매개로 하는 사회문화적 현상의 사회적 영향 역시 크게 확대되던 시기였다. 따라서 미군이 한반도를 주 대상 지역으로 운영한 심리전 방송 VUNC 프로그램이 어떻게 편성되었고, 실제 청취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청취했는지 살펴보는 작업은 냉전기 심리전 방송의 이해와 라디오 지배 매체 시기 한국 청취자의 특수방송 청취 양상 이해라는 두 차원에서 연구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의 전쟁에서 심리전은 무력전을 보조하는 방편이 아니라 그 자체가 독립된 전술로서 평가된다.<sup>3</sup> 이런 인식에서 1950년대와 1960년대 냉전기에 미국의 해외방송은 매우 중요한 심리전 매체 가운데 하나로 활용되었다. 1953년 1월 아이젠하워(Eisenhower)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은 미국 민주주의의 확산을 위한 원조정책, 반공의 세계화와 반혁명을 억제하기 위한 개입정책이었다(권용립, 1997). 철저한 반

---

3 이 부분은 김영희(2012)의 247~248쪽을 참조했다.

공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세계 어떤 지역에서도 공산주의가 확대되는 것은 미국 국가이익의 침해라고 보고 그 봉쇄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미국에서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로 부르는 대외 선전정책과 활동은 이러한 대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냉전의 무기’로서 해외공보처(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 USIA)를 중심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이상호, 2008; 貴志俊彦·土屋由香, 2009). 특히 한반도는 공산국가들과 직접 맞닿은 반공의 최전선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대외 정책과 대외 선전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반공체제를 확립하여 이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었다. 이와 같은 대외 선전정책과 활동은 1960년대 케네디(Kennedy)와 존슨(Johnson) 대통령 시기까지 이어졌다. 1960년대 VUNC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은 이러한 미국의 정책방향에 의한 대외 정책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대외정책과 함께 한국전쟁으로 본격화한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지원은 오로지 반공정책을 유지할 때만 지원하는 조건이었다. 이후 반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라는 이른바 미국의 범위(American boundary)는 한국사회의 기본적인 범위와 제약으로 작용했다(박명림, 1998, 87~88쪽).<sup>4</sup>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문화적 냉전의 제약은 한국사회 각 분야 조직의 틀 및 운영규칙에 항상적으로 작용했던 ‘상수(constant)’로 설명될 정도다(강명구·백미숙·최이숙, 2007, 6~7쪽). 이런 미국의 영향 아래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정권 시절 극단적이고 적대적인 극우반공 정책이 시행되면서 1950~1960년대 한국사회는 반공과 냉전의 논리가 일상화되었던

---

<sup>4</sup> 미국의 입장에서 민주주의가 어려운 상태에서 사회주의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일이었으므로, 독재와 권위주의 수용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반공국가여야 하되 민주주의체제여야 한다는 미국의 범위는 미국이 한국에 가하는 한계이자 한국이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 행위할 수 있는 자율의 공간으로 설명된다. 이 둘 가운데 좀 더 본질적인 한계는 공산주의와의 범위를 설정한 반공의 상한이었다.

사회였다. 이런 사회분위기에서 일부 라디오 청취자들이 심리전 방송 VUNC 프로그램을 청취한 것이다.

지금까지 VUNC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한국전쟁 기간의 VUNC에 대해 이가와(井川充雄, 2002)가 한국전쟁기 VUNC가 임차했던 NHK의 시설과 네트워크, 미군과 NHK의 법적, 행정적 관계를 고찰한 연구가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전쟁기 VUNC의 방송 운용, 심리전 정책과 편성, 청취실태와 효과의 한계를 다룬 연구(장영민, 2008)와 VUNC의 운용 및 한국 라디오 방송과의 관계, VOA와 VUNC 두 방송의 성격과 청취양상을 비교한 연구가 있다(김영희, 2009). 한국전쟁 이후에 대해서는 레닉이 박사학위 논문에서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론을 적용해 1960년대 미국의 선전정책의 맥락에서 VUNC를 고찰한 바 있다(Renick, 1972). 이 연구는 1960년대 중반 VUNC의 정책, 운용, 프로그램 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의가 있으나, 논의가 충분한 것은 아니었다.

고바야시(小林聰明, 2010)는 냉전기 아시아 전파전쟁의 시각에서 한국전쟁 휴전 이후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심리전 부대의 전체 조직 변경 내용을 고찰하고, 1960년대 VUNC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특히 휴전 이후 VUNC 소속 부대 변천과정을 처음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연구의의가 있다. 김영희(2012)는 1960년대 VUNC의 운영체제와 폐쇄과정을 고찰했다. 이 연구는 VUNC가 1960년대 어떤 논의와 과정을 거쳐 폐쇄되었는지 처음으로 고찰했다는 점에서 연구의의가 있다. 이런 연구들을 통해 한국전쟁기와 1960년대의 VUNC의 운영목표와 담당조직 및 폐쇄 등에 대해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드문 냉전기 심리전 방송인 VUNC의 프로그램 편성이나 청취자의 성격 및 청취경향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전쟁 이후 냉전이 심화되었던 시기 VUNC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제작, 편성했는지, 청취자들은 누구이고, 무엇을 어떻게 청취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고찰을 통해 과연 이 시기 VUNC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이런 문제들에 주목하여 한반도를 대상으로 미군 심리전 부대가 운영한 VUNC의 1960년대 방송 프로그램과 청취자의 청취양상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VUNC가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갖는지 역사적 문헌연구 방법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주로 활용한 1차 사료는 미국 국가문서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에서 수집한 문서자료다.

## 2. 1960년대 VUNC 운영과 프로그램 편성

### 1) 1960년대 VUNC 프로그램 제작과 송출

VUNC는 한국전쟁이 발발해 출현했으나 휴전 이후에도 폐쇄하지 않고 미군 심리전부대에서 운영했다. 심리전부대의 지휘관계와 부대 명칭은 미군의 극동과 태평양지역 심리전 부대 조직 편성방침에 따라 변경되었으나, 기본적인 업무는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었다. 미국의 극동 심리전 부대의 조직은 동서냉전이 심화되면서 1956년부터 확대되었다. 1956년 극동심리전부가 미극동 육군 방송·시각활동부대로 개편되어, 태평양 육군사령부의 지휘를 받으며 심리전 기획업무를 담당했다.<sup>5</sup> 1958년 2월에는 미태평양육군방송·시각활동부대(US Army Broadcasting and Visual Activity, Pacific, USABVAPAC)로 개편되어 오키나와(沖繩)로 본부를 옮기고 조직이 더욱 확대되었다. 또한 1965년 2월 10일 VUNC 운영을 주요 업무로 하는 한국파견대를 독립 설치하고, 송신시설을 확충하여 운영했다.<sup>6</sup> 미태평양육군방송·시각활동부대는 1965년 10월

---

<sup>5</sup> Department of the Army, 7th Psychological Operations Group, Organizational Mission and Functional Manual, 1 July 1968.

<sup>6</sup> 24th Psychological Operations Detachment (A&S) APO SNAFRANCISCO 96301 Unit History -1970.

20일 제7심리전부대(7th Psychological Operations Group)로 개편되었다.

미태평양육군방송·시각활동부대(제7심리전 부대)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심리전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일본파견대는 방송시각활동부대 시절 가장 먼저 설치된 파견대로 도쿄의 캠프 드레이크(Camp Drake)에 있었는데, VUNC라디오 네트워크를 위한 뉴스프로그램을 담당했다. 그 후 오키나와에 있는 제15심리전 파견대(전략)(15th PSYOP Detachment)가 전략 심리작전을 담당하여, VUNC의 프로그램 편성 방침과 내용을 결정했다. VUNC 프로그램 제작을 담당한 라디오계(Radio Branch)도 여기에 소속되었다.<sup>7</sup>

VUNC 프로그램은 크게 뉴스, 뉴스에 대한 해설, 특집프로그램, 음악 방송으로 구성되었다.<sup>8</sup> VUNC의 프로그램은 심리전 방송의 역할에 맞게 북한과 남한 대상 모두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루어진 성취와 공산주의 정부의 실패와 좌절을 비교하면서 세계문제에 대한 미국의 견해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방송 목표아래 북한과 남한의 대상 수용자와 당시의 시기적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전략과 방침을 정했다.

1963년 VUNC 프로그램은 세 군데서 제작되었다.<sup>9</sup> 먼저 오키나와 기지국에서는 매주 편성계획, 정책과 프로그램 방향을 결정하고, 특집 프로그램들과 〈음악의 향연〉을 제작했다. 일본파견대에서는 뉴스와 뉴스해설 프로그램을 한국어, 중국 표준어 및 광둥어로 제작해 한국파견

---

<sup>7</sup> History of the 7th Psychological Operations Group, 19 August 1965-31 December 1965, United States Army, Ryukyu Islands.

<sup>8</sup> Department of the Army, 7th Psychological Operations Group, Organizational Mission and Functional Manual, 1 July 1968, Appendix X X X VII.

<sup>9</sup> VUNC Program and Transmission Schedule, 1 April 1963. VOICE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U.S. Army Broadcasting & Visual Activity, Pacific. (RG 550 Box14 228-08 General Orders[1965-67]). p. 6.

대로 보냈다. 한국파견대는 매일 한국어로 제작하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매주 방송된 내용을 녹음해서 오키나와로 보냈다. 프로그램 송출은 오키나와 기지국과 일본파견대에서 제작한 프로그램 및 한국파견대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한국파견대에서 서울 기지국과 VUNC “A”(강화도) 및 VUNC “B”(철원)로 송출하는 방식이었다.

뉴스와 해설 프로그램의 경우 매일 아침 뉴스자료들이 심리전 훈련을 받은 미국인 작가에게 넘겨지는데, 이 작가들이 미 태평양방송시각활동부대의 캠페인 계획과 심리정책지침서를 참고해 뉴스를 작성했다. 뉴스를 영문으로 15부 만들어 중국과와 한국과에 보내 번역했다. 이것이 완성되면, 내용이 재검토되고 한국어와 중국어로 된 3가지 프로그램(5분짜리 종합, 11분, 15분짜리 뉴스)과 15분짜리 광둥어 뉴스를 만들었다. 이와 함께 매일 보도국에 배속된 심리전 담당 관리자들이 통상 작성한 뉴스해설을 3개 언어로 제작했다. 남한 청취자들이 관심 갖는 한국 내 뉴스 보도와 특집 프로그램은 한국파견대에서 제작했다. VUNC의 정보원은 AP, UPI 등 미국의 국제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 미국과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해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반영한 미국 공보원(USIS)의 무선파일(Wireless File), 여러 연구기관의 간행물, 정기간행물들, 유엔사령부와 UN 및 다른 나라의 공보처에서 보낸 자료 등이었고, 그밖에 여러 방송과 접촉해 받은 정보들을 뉴스보도를 위한 배경자료로 활용했다.<sup>10</sup>

VUNC의 송신시설로 한국에 설치된 송신기(transmitter)는 강화도, 강원도 군사분계선 근처의 철원, 서울 용산 등 3지역에 4대가 있었다.<sup>11</sup> VUNC-A로 명명된 강화도의 송신기는 50KW 출력의 중파이고, VUNC-B로 명명된 철원의 송신기는 5KW 출력의 중파로 대북한 송신기였다. 용산에는 300W 출력의 2대의 단파와 출력 5KW의 중파 송신기

---

**10** 위의 자료, p.6; History of United States Army Broadcasting & Visual Activity Pacific AND 14th Psychological Warfare Battalion 1963(RG 550 Box 232). p.86.

**11** History of United States Army Broadcasting & Visual Activity Pacific and 14th Psychological Warfare Battalion, 1963. Appendix X X X VII. p. 85.



가 설치되었다. 북한과 비교적 가까운 세 지역에서 중파와 단파로 송출한 것이다. 철원 송신기 출력은 1970년 3월 23일 10KW로 증강되었다.<sup>12</sup> 북한대상 방송은 VUNC A(50KW 중파), VUNC B(5KW 중파), 300W 단파를 동시에 사용했다. 한국파견대가 관리한 VUNC의 기지국(base station)은 서울의 용산에 설치되었고, KBS는 VUNC 프로그램을 중계하는 데 활용했다.

## 2) 1960년대 VUNC의 프로그램 편성

1963년 4월 1일 현재 VUNC 프로그램은 <표 1>에서 <표 5>와 같이 편성되었다.<sup>13</sup> 다음 표에서 보듯 VUNC 프로그램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대부분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편성했고, 일요일은 특집 프로그램들로 꾸며졌다. 전체 방송시간은 오후 5시에서 다음날 오전 11시 30분까지 18시간 30분이었는데, 이 가운데 한국어 방송은 오후 5시에서 새벽 1시까지와 새벽 4시 30분에서 오전 11시 30분까지로 15시간을 방송했고, 중국 표준어(북경어 Mandarin)와 광둥어(廣東語, Cantonese) 방송은 새벽 1시에서 새벽 4시 30분과 오전 6시 30분에서 오전 8시 30분까지 5시간 30분 동안 방송했다.

전체 18시간 30분 방송이지만, 반복 방송이 많아, 한국어 프로그램 제작은 오후 5시에서 오후 9시까지 4시간과 밤 11시에서 새벽 1시에 서울 기지국에서 방송하는 2시간 진행의<음악의 향연>의 6시간 분량이고, 중국 표준어 프로그램이 1시간 30분, 광둥어 프로그램이 30분 분량이었다. <가공이 아닌 사실>, <대답하는 사람>, <장교와의 대화>, <자

<sup>12</sup> 24th Psychological Operations Detachment (A&S) APO SNAFRANCISCO 96301 Unit History -1970.

<sup>13</sup> VUNC Program and Transmission Schedule, 1 April 1963. VOICE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U.S. Army Broadcasting & Visual Activity, Pacific. (RG 550 Box14 228-08 General Orders[1965-67]). pp.1~5.

표 1. 오후 5시~8시 편성 프로그램<sup>15</sup>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700:00-1800:00	시험방송 음악(일-토)						
1800:00-1900:00	가벼운 클래식(일-토)						
한국어 V - VI							
1900:00-1905:00	국내 뉴스	국내 뉴스(월-토)					
1905:00-1910:00	국내뉴스						
1910:00-1915:00	해설						
1915:00-1924:30	뉴스	뉴스(월-토)					
1924:30-1925:00		안내방송(spot 월-토)					
1925:00-1930:00		뉴스 해설(월-토)					
1930:00-1935:00	순희와 함께하는 일요일	북한으로 보내는 편지(월-토)					
1935:00-1945:00							
1945:00-1959:30		전진하는 한국	해설	전진하는 한국	해설	전진하는 한국	해설
1959:30-2000:00	공지사향(일-토)						

유세계의 생활), 〈자유로의 길〉은 한국어와 중국어 프로그램이 같은 내용으로 언어만 달라지는 프로그램들이었다. 프로그램 분량은 편성 시간에 알 수 있듯이 일요일 프로그램과 음악프로그램을 제외하면, 대부분 5분, 10분 또는 길어도 20분 이내로 짧은 편이었는데, 프로그램의 길이에 대해 평가위원회는 1,360개의 응답내용 가운데 적절하다가 55.5%, 빈약

표 2. 저녁 8시~9시 편성 프로그램<sup>16</sup>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한국어 III								
2000:00-2001:00	주피수 안내(일-토)							
2001:00-2012:00	자유외 중	뉴스(월-금)					뉴스평가	
2012:00-2021:00		모란(월-금)						
2021:00-2029:30							UN의활동	
2029:30-2030:00	공지사항(일-토)							
한국어 II								
2030:00-2035:00	뉴스-5(일-토)							
2035:00-2049:30	종교의 시간	가공이 아닌 사실	자유세계의 생활	한국어 말하기	우리가 사는 세계	자유세계의 생활	위기의 인간	
2049:30-2050:00		안내방송(spot 월-토)						
2050:00-2059:30		대답하는 사람	자유로의 길	장교와의 대화	신문요약	자유보고	러시아 강좌	
2059:30-2100:00	공지사항(일-토)							

하다는 9.5%로 긍정적인 평가가 훨씬 많았다.<sup>14</sup>

<sup>14</sup> VUNC Korean Panels, Summary of First Six Sessions, January-June 1968. Department of The Army HQ, 7TH Psychological OPERN GP 67-69, ACC 73-A-0174 (RG 338 Box 1 206-05), p.10.

<sup>15</sup> VUNC Program and Transmission Schedule, 1 April 1963. VOICE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U.S. Army Broadcasting & Visual Activity, Pacific. (RG 550 Box14 228-08 General Orders[1965-67]). p.1.

표 3. 새벽 1시~2시 편성 프로그램<sup>16</sup>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중국 표준어 I							
0100:00-0114:30	뉴스-15(일-토)						
0114:30-0115:00	안내방송(spot 월-토)						
0115:00-0125:00	솔직해 집시다	논평(월-토)					
0125:00-0129:30		음악의 세계(월-토)					
0129:30-0130:00	공지사항(일-토)						
중국 표준어 II							
0130:00-0135:00	뉴스-5(일-토)						
0135:00-0149:30	country pastry	가공이 아닌 사실	자유세계 의 생활	자유중국 으로부터 의 보고	우리가 사는 세계	자유세계 의 생활	위기의 인간
0149:30-0150:00	안내방송(spot 일-토)						
0150:00-0159:30	러시아 강좌	대답하는 사람	자유로의 길	장교와의 대화	신문요약	당신의자 유형제들	자유보고
0159:30-0200:00	공지사항(일-토)						

밤 9시에서 10시(21:00-22:00)에는 <표 1>의 한국어 V와 VI 프로그램을 반복 편성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한국의 국제방송국으로도 중계되었다. 한국 방송에서 VUNC 프로그램 중계는 한국전쟁 당시부터 시작되었는데, 1963년 한국에서 대외방송을 담당했던 국제방송국 프로그

16 위의 자료, p. 2.

표 4. 새벽 2시~3시 편성 프로그램<sup>17)</sup>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중국 표준어 III								
0200:00-0201:00	대만 스케치북	뉴스-11(월-금)					뉴스평가	UN의활동
0201:00-0221:00		란사 (Lhanssa)(월-금)						
0221:00-0229:30								
0229:30-0230:00	공지사항(일-토)							
광둥어								
0230:00-0244:30	뉴스-15(일-토)							
0244:30-0245:00	안내방송(spot 일-토)							
0245:00-0255:00	대답하는 사람	논평(월-토)					음악의 세계(월-토)	
0255:00-0259:30								
0259:30-0300:00	공지사항(일-토)							

램 가운데 VOA 한국어방송과 VUNC 프로그램 중계는 전체 프로그램의 27%였다(한국방송공사, 1977, 608쪽). 이때 중계된 VUNC 프로그램이 한국어 V와 VI 프로그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sup>17)</sup> 밤 10시에서 11시(22:00~23:00)는 <표 2>의 한국어 III과 II 프로그램을 다시 방송했다. 밤 11시부터 새벽 1시(23:00~01:00)는 서울 기지국과 VUNC “A”(강화도) 및 VUNC “B”(철원)로 구분해 2개 채널로 방송했다. 서울 기지국은

<sup>17)</sup> 위의 자료, p. 3.

표 5. 새벽 4시 30분~오전 11시 30분 편성 프로그램<sup>20</sup>

기지국, 서울			VUNC "A", 강화도	
04:30-05:30	가벼운 클래식	반복	04:30-05:30	한국어 V와 VI
05:30-06:30	한국어 V와 VI	"	05:30-06:30	한국어 III과 II
06:30-07:30	한국어 III과 II	"	06:30-08:00	중국어 I II III
07:30-08:30	한국어 V와 VI	"	08:00-08:30	광둥어
08:30-09:30	한국어 III과 II	"	08:30-09:30	한국어 V와 VI
09:30-11:30	음악의 향연	"	09:30-10:30	한국어 III과 II
			10:30-11:30	가벼운 클래식

이 시간에 서양 클래식 음악프로그램인〈음악의 향연〉을 2시간 동안 방송했고, VUNC "A"와 VUNC "B"는 밤 11시에서 12시(23:00~24:00)는 〈표 1〉의 한국어 V와 VI 프로그램을, 밤 12시에서 1시(00:00~01:00)에는 〈표 2〉의 한국어 III과 II 프로그램을 반복해서 편성했다. 새벽 1시 이후에는 다시 단일 채널로 중국어로 방송하는 〈표 3〉과 〈표 4〉의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새벽 3시에서 4시 30분(03:00~04:30)에는 〈표 3〉과 〈표 4〉의 중국어 I, II, III 프로그램을 반복 편성했고, 오전 4시 30분부터 11시 30분(04:30~11:30)까지는 〈표 5〉와 같이 다시 2개 채널로 프로그램을 편성해 방송했다. 이때는 철원의 VUNC "B"로는 송출하지 않았다.

서울 기지국에서 송출하는 1주일 방송내용의 프로그램 유형별 편성 비율은 〈표 6〉과 같다. 한국어 프로그램은 음악 프로그램이 가장 많아 40%였고, 특집프로그램이 29.8%, 뉴스와 해설이 합해 22%였다. 중국 표준어는 특집프로그램이 48.7%로 가장 많았고, 뉴스와 해설이 43.1%

18 위의 자료, p. 3.

19 위의 자료, p. 4.

표 6. 1주일 방송 프로그램유형별 편성비율

(단위: %)

	한국어	중국어표준어	광둥어
뉴스	16,3	30,4	48,3
뉴스해설	5,7	12,7	-
음악	40,0	4,3	12,9
특집	29,8	48,7	35,5
안내방송(spot)	1,5	3,9	3,3
테스트	6,7	-	-

였다. 1일 30분 방송되는 광둥어는 뉴스와 특집프로그램 위주로 편성되었다. 뉴스와 해설은 물론 특집프로그램도 <표 7>과 같이 심리전 방송의 성격에 맞는 주제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Renick, 1972, pp. 192~195).<sup>21</sup>

이상에서 보듯 VUNC 프로그램은 심리전 방송의 목표에 충실한 주제들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 가운데 북한 청취자를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모란>은 한국파견대의 조사에서 한국에서 가장 많이 듣고, 좋아하는 VUNC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였다(“VUNC 청취자 조사”, 1962년 6월, Renick, 1972, pp. 192~193에서 재인용).<sup>22</sup> 그러나 북한 공산주의식 노래에 익숙한 북한사람들에게 이 프로그램의 음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비슷하게 나뉘었다.<sup>23</sup> 15년이 넘게 남한과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생활한

20 위의 자료, p. 5.

21 History of United States Army Broadcasting & Visual Activity Pacific AND 14th Psychological Warfare Battalion 1963(RG 550 Box 232). pp.87~88.

22 “Survey of VUNC Audience,” Korea Detachment, United States Army, Broadcasting & Visual Activity, Pacific. June 1962.

23 VUNC Korean Panels, Summary of First Six Sessions, January-June 1968. Department of The Army HQ, 7TH Psychological OPERN GP 67-69, ACC 73-A-0174 (RG 338 Box 1 206-05), p. 11.

표 7. VUNC 주요 프로그램 주제와 내용

오키나와 스튜디오 제작	오늘의 세계 (한국어와 중국어)	국내외 및 공산세계의 사건들 소개
	Country Pastry(중국어)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행동이나 결정 풍자 프로그램. 대중에게 고통을 안기는 중국 공산당 지도자의 잘못된 결정 관련 내용 포함
	한국의 재발견(한국어)	자유진영의 틀 안에서 근대적으로 번영하는 한국사회의 오늘을 이끄는 정신의 토대가 되는 역사적, 문화적 사건의 드라마화
	당신의 자유로운 형제들(중국어)	중공의 곤궁과 퇴보를 대비시켜, 대만의 발전을 설명하는 다큐멘터리. 민주주의 국가의 긍정적 성취 강조
	란쎄(Lhanssa 중국어)	중국 젊은 여성이 진행하는 선전메시지와 인기 대중음악 제공 프로그램. 미국의 평화봉사단, 미국의 원조 프로그램, 집단농장의 실패 등 관심가질 시사포함
	모란(한국어)	한국인이 관심가질 시사 관련 선전메시지와 한국의 대중음악
	UN의 활동 (한국어와 중국어)	세계 평화와 복지 증진위한 유엔의 노력과 활동 설명
서울 스튜디오 제작 (한국어)	가벼운 클래식시간	일부 신창곡 포함 가벼운 클래식음악
	종교의 시간	감리교재휴 기독교방송(HLKY) 제작의 일요일 프로그램
	순회와 함께하는 일요일	국군이 신청한 유행가 들려주는 DJ 진행프로그램
	북한으로 보내는 편지	한국시민이 쓴 편지와 메시지를 북한의 친구와 친척에게 방송하는 프로그램
	전진하는 한국	남녀 두 진행자가 한국의 경제사회발전전에 대한 설명, 해설, 인터뷰
	해설	북한의 정치, 경제 및 사회상 해설하면서 공산주의 비판

북한 사람들의 가치관과 감정을 고려한 음악선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해설(Commentary)은 북한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불만을 야기하는 데 중점을 둔 프로그램이다(Renick, 1972, p. 194). 일반적인 공산주의 및 북한에만 특별한 공산주의와 관련되는 모든 상징들은 부정적으로 표현했다. 이 프로그램이 공산주의를 매우 부정적으로 설명하지만, 적대감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것으로, 북한 사람들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 방식이었다. 프로그램은 현 상태의 대변혁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혁명적인 선전형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었다.



표 8. VUNC 특집 프로그램(1963년 10월 현재)

중소분쟁과 북한정권	남한 유명인사가 인터뷰 형식으로 중소분쟁 토론, 북한의 문제 해결은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만이 해결해준다는 것을 강조
575일간의 흉몽	일본에서 복송되어 남한에 귀순하기까지 575일간을 경험을 담은 같은 제목의 책을 연속 낭독
스타 드라마 시리즈	MIG15기를 몰고 한국에 귀순한 북한조종사의 설명에 자극받아 제작한 연속극

〈표 8〉은 1963년 VUNC 서울 스튜디오에서 한국어로 제작한 특집 프로그램(Special Features) 주요 사례다.<sup>24</sup> 당시 시대상황과 사건에 대해 심리전의 시각에서 대응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VUNC는 1963년 10월 21일 방송시간이 오후 3시에서 다음날 새벽 6시까지(15:00-06:00)로 시간대가 변경되고, 30분 단축되었다.<sup>25</sup> 또한 프로그램 가운데 〈가공이 아닌 사실〉, 〈대답하는 사람〉, 〈장교와의 대화〉, 〈자유세계의 생활〉, 〈자유로의 길〉, 〈솔직해집시다〉 등은 25분 분량의 〈국내외 및 공산세계의 사건들을 다루는 -오늘의 세계〉로 대체되었다.<sup>26</sup> 이렇게 변경되었으나 프로그램의 주제, 형식 및 송출 방식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었다.

1960년대 들어 미국의 해외공보처(USIA), 주한 미국대사관, 주한 미국공보원 등 대외 외교홍보 담당자들이 VUNC를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면서, 국방부와 극동 심리전부대 관계자들이 대외홍보 관계자들과 협의를 시작해, 1967년 3월 7일 중국어 프로그램을 먼저 중단했다.<sup>27</sup> 1967년 6월 이후에는 직접적인 심리전 프로그램은 편성하지 않고

<sup>24</sup> History of United States Army Broadcasting & Visual Activity Pacific AND 14th Psychological Warfare Battalion 1963(RG 550 Box 232). pp. 88~89.

<sup>25</sup> Voice of United Nations Command, US ARMY BROADCASTING AND VISUAL ACTIVITY, PACIFIC, Transmissions from Okinawa, Effective 21 October 1963.

<sup>26</sup> History of United States Army Broadcasting & Visual Activity Pacific AND 14th Psychological Warfare Battalion 1963(RG 550 Box 232). pp. 87~88.

미국 정책에 조율하기 위해 주한 미대사관 및 미국공보원과 협조하여 프로그램 편성했다.<sup>28</sup> 군사적인 입장의 심리전 방송이라기보다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홍보선전방송 성격의 프로그램을 편성한 것이다. 1967년 현재 방송시간은 매일 오후 6시에서 다음날 12시까지 18시간 방송했다. 프로그램은 뉴스와 해설 30.4%, VOA 뉴스와 논평 중계 9.5%, 음악 33.3%, 특집프로그램 26.8%로 편성되었다.<sup>29</sup> 1969년 10월 6월부터 방송시간이 매일 6시간으로 많이 감축되었다.<sup>30</sup> 또한 이때부터 남한과 북한대상 프로그램의 구분을 없애, 단일 체제로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 3) 프로그램 평가위원회 운영

제7심리전부대는 VUNC 방송의 효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세 가지 방법을 활용했다. 먼저 한국인으로 프로그램 평가위원회(Panel Sessions)를 구성해 VUNC 방송, 테이프, 대본을 평가한 의견을 들었고, VUNC 청취자 대상으로 청취율을 주기적으로 조사했다. 또한 방송국에 보내오는 편지내용을 통해 청취양상을 파악했다.<sup>31</sup>

---

**27** Outgoing Telegram, subject: Voice of UN Command, from Department of State to USUN NY, AMEMBASSY SEOUL, 12/26/68. VUNC 폐쇄협의 과정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김영희(2012) 참조.

**28** Action Memorandum, subject: Proposal for Discontinuing the Voice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VUNC), EA-Mashall Green to The Secretary, Oct 11, 1969 (RG306 A1 42, Box7).

**29** SECRET VOICE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VUNC), General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State, Subject Files of the Office of Korean Affairs, 1966-1974 (RG59 Lot File 73D360, Box4(5 of 10). pp. 2~3.

**30** Department of the Army, 7th Psychological Operations Group, Organizational Mission and Functional Manual, 1 July 1968.

**31** SECRET VOICE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VUNC), General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State, Subject Files of the Office of Korean Affairs, 1966-1974 (RG59 Lot File 73D360, Box4(5 of 10). pp. 38~39.

VUNC 프로그램의 심리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는 1960년대 지속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제7심리전부대 평가분석팀은 평가위원회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종합해 프로그램 평가보고서를 만들었다.<sup>32</sup> 대북한 프로그램의 경우 평가위원회는 최근 북한에서 투항한 북한인들, 고학력자로 북한에 있을 때 당 간부, 교수, 교장, 고위 정부관료, 인민군 장교, 기술자 등 상당히 책임 있는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로 구성했다. 남한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 서울소재 각 신문사 및 방송사 기자인 판문점 출입 기자들과 정부관료, 교사, 장교, 주부 등 남한 VUNC 청취자들로 구성했다. 평가위원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교체해서 구성했다. 1968년의 경우 프로그램 평가항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sup>33</sup>

(1) 방송대본(scripts)에 대한 평가

- ① 주제에 대한 이해도, ② 주제에 대한 흥미, ③ 제시된 사실에 대한 신뢰성, ④ 대본의 효과, ⑤ 사용언어의 이해도

(2) 방송기술면에서의 프로그램 평가: 발음, 억양, 음성, 호소력 등에 관한 방송기법 및 품질

(3) 기타 기술적인 면에 대한 평가: 형식, 음향효과, 주제음악, 간주음악 및 각 프로그램의 분량

이런 항목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평가에서 특히 강조한 것은 외부 세계와 격리된 채 오랜 기간 자유세계에 대해 비방하는 선전만을 듣는 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은 그들이 더 잘 이해하도록 충분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예를 들어 한국에 대한 미국의

<sup>32</sup> VUNC Korean Panels, Summary of First Six Sessions, January-June 1968, Department of The Army HQ, 7TH Psychological OPERN GP 67-69, ACC 73-A-0174; VUNC Korea Panel Report of Third & Fourth Sessions October & November 1970 참조. (RG 338 Box 1 206-05)

<sup>33</sup> 위의 자료(1968), pp. 3~14.

원조를 강조하는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자립정책(self-reliance policy)에 배치되는 일이므로,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해 기존 의견과 태도를 오히려 강화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sup>34</sup> 1968년 상반기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평가분석팀이 제시한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았다.<sup>35</sup>

- (1) 이 보고서는 VUNC 운영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읽을 것.
- (2) 대본 작가들은 준거기준에 유의하면서 북한 청취자들이 북한 선전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청취자들이 바람직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사실과 사례를 제시할 것.
- (3) 대본 작가는 북한 청취자들이 북한 선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인식하고, 북한 선전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해 청취자들의 예상되는 반응을 고려할 것. 이런 주제들은 청취자가 미국, 남한 및 서방세계에 대한 현재의 부정적인 태도를 강화시킬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 (4) 화폐는 북한 돈으로 환산할 것.
- (5) 생소한 용어는 피하거나 충분히 설명할 것.
- (6) 인터뷰 테이프 프로그램 제작 시 기술적인 세부사항에도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방송 전 청취자 편의를 위해 점검할 것.
- (7) 더 좋은 음향효과, 간주음악 등의 선정뿐만 아니라 VUNC 주 청취자 프로그램의 최상의 녹음품질을 위해 제15심리전파견대의 라디오분과에 소속된 음향전문가와 전문적인 프로그램 연출자의 활용을 고려할 것.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한국 청취자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한국인이 바람직하다.

<sup>34</sup> 위의 자료(1968), p. 5.

<sup>35</sup> 위의 자료(1968), p. 17.

이상과 같이 VUNC는 방송내용, 방송대본, 방송 표현 및 방송 기술 등 각 부분에 대해 평가위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그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프로그램에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프로그램 평가위원회는 VUNC가 폐쇄된 1971년 상반기까지 운영했다.

### 3. 1960년대 남북한 청취자의 특성과 청취양상

1963년 VUNC가 목표로 한 우선적인 대상 수용자는 북한과 공산주의 중국의 군대 및 공산당과 정부 관리, 지식인, 전문직, 기업인, 학생과 교사 등 엘리트 민간인이었다.<sup>36</sup> 부차적인 대상 수용자는 남한의 서울지역 중심의 군인 장교, 정부 관리, 지식인 계층, 전문직, 기업인, 학생과 교사 등 엘리트 집단이었다. 1960년대 VUNC의 방송 임무와 역할은 평시 심리전으로서 목표대상에 따라 다르게 규정했다.<sup>37</sup> 북한 대상 프로그램은 공산주의 선전에 적극 대처하고, 북한 주민에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한국의 발전을 알리고자 했고, 남한 대상 프로그램은 남한 청취자들에게 미국을 적극 알리고, 한국에서 미국의 관계와 영향력을 강화하며, 미군 활동을 지지하도록 호의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있었다(김영희, 2012, 250~251쪽).

---

**36** History of United States Army Broadcasting & Visual Activity Pacific AND 14th Psychological Warfare Battalion 1963(RG 550 Box 232). p. 84.

**37** SECRET VOICE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VUNC), General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State, Subject Files of the Office of Korean Affairs, 1966-1974 (RG59 Lot File 73D360, Box4(5 of 10). pp. 1~5.

## 1) 북한의 VUNC 청취 양상

VUNC의 1차적인 대상 수용자인 북한 청취자들이 VUNC방송을 어떻게 청취하는지 그 반응이나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 없으므로 간접적으로 그 효과를 짐작하는 방법을 활용했다. 이를 위해 북한에서 라디오수신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를 조사하고, 남한에 망명하거나 투항한 북한인과 체포된 남파간첩들로부터 VUNC 청취에 대한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그 효과를 확인했다.

북한당국은 기본적으로 자유세계에서 송출하는 방송청취를 엄격히 규제했다.<sup>38</sup> 모든 북한제 라디오는 북한방송만 수신하도록 주파수를 고정해서 판매했고, 주파수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통신부 직원이 집집마다 방문하거나 동회에 가져오게 해서 주파수를 고정시켰다. 1963년에서 1966년 기간 라디오수신기 판매를 늘리기 위해 라디오 주파수를 북한방송에 고정하는 규제조치를 완화한 적도 있으나, 대부분의 보통사람들은 남한방송이나 VUNC 청취가 어려운 구조였다. 따라서 VUNC 청취는 주파수가 고정되지 않은 라디오를 소유할 가능성이 있는 당과 군의 상대적으로 고위급들에게나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한으로 투항한 북한인들이나 체포된 남파요원들에 의하면, 외국 라디오방송 청취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지만 북한 사람들은 VUNC를 듣고 있으며, 북한매체가 다루지 않는 주제를 포함해 세계의 발전상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한다.<sup>39</sup> 또한 라디오에서 들은 정보는 빠르다 전하는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968년 8월 남한에서 체포된 북한 공작 요원과 1968

---

**38** PSYOP INTELLIGENCE NOTES, Target Analysis Section, 7th Psychological Operations GP, Radios in North Korea, pp. 4~5.

**39** SECRET VOICE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VUNC), General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State, Subject Files of the Office of Korean Affairs, 1966-1974 (RG59 Lot File 73D360, Box4(5 of 10), p.38.

년 남파를 위한 특수부대인 124군부대에서 군사훈련을 받은 전 북한군 장교들에 의하면 혼자서 혹은 단체로 한국방송을 자주 들었는데, VUNC도 청취했다고 한다.<sup>40</sup> 청취프로그램은 뉴스, 대중음악, 투항자 인터뷰 등이었다. 그들은 방송을 들으며 남한이 자유스럽다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는데, 그런 이미지는 교관이 설명한 남한이 지옥이라는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이 사례들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조심스럽겠지만, 만일 북한 사람들이 VUNC를 듣는다면 비슷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 원칙적으로는 VUNC 청취가 가능하지 않지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여러 방식으로 청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자유의 벗』에 실린 다음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특히 북한의 고위급이나 전문직들은 VUNC를 청취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자유의 벗』, 1971년 12월호, 25쪽). 그들이 남한으로 귀순한다면 VUNC를 포함한 남한 방송 접촉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유엔군사령부방송은 공산 북한에 많은 청취자를 가지고 있었다. 그 증거로 북한 공산정권 기관지 “민주조선”의 전 편집국장 고 한재택씨, 소련 공산당 기관지 ‘프라우다’의 전 특파원 이동준씨, 전 북한군 소령 김동일씨, 1968년 1월 21일 서울에 침입한 북한무장간첩 31명의 중의 한 사람인 김신조씨 등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찾은 여러 북한 귀순자들은 모두 북한에 있을 때 유엔군사령부방송을 들었다고 한다.

## 2) 한국의 VUNC 청취 양상

남한은 VUNC의 부차적인 대상 지역이었지만, VUNC는 여러 면에서 남한의 VUNC 청취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KBS 방송문화

---

<sup>40</sup> Summary of PSYOP Effectiveness 2-69, 206-05 PSYOP Effectiveness Rpt, (69). Department of The Army, HQ, 7TH Psychological Operations Group (RG 550 Box 1), pp. 5~7.

표 9. 한국 전문가 및 엘리트집단의 VUNC 청취양상(1968)

지난달에 들은 특수 라디오 방송	AFKN 35%, VOA 33%(매스 미디어 종사자 45%), VUNC 27%(대학생 41%), 일본 방송 15%
거의 매일 듣는 특수 방송	VOA 25%, AFKN 23%, 일본 방송 19%, VUNC 14%
청취하는 특수 방송의 언어	VOA 한국어 82%, 영어 17%, VUNC 한국어 68%, 영어 31%, 일본 방송 한국어와 영어 3%씩, 일본어 95%, AFKN 한국어 2%, 영어 97%
일상적으로 듣는 특수 방송 프로그램(음악, 뉴스, 기타의 순)	VOA 2%, 81%, 12%, VUNC 31%, 41%, 20%, AFKN 19%, 63%, 14%

연구실에서 1959년 12월 서울지역 1,500세대 대상 방송국별 청취율 조사결과 VUNC는 7%(AFKN 미군방송은 8%)였고(서규석, 2000, 319쪽), 1960년 4월 서울 이외 지역의 2,500세대 대상으로 한 청취율 조사에서 VUNC는 2.1%였다(AFKN 미군방송은 3.9%, VOA 한국어방송은 2.3%) (서규석, 2000, 337쪽). 이와 같이 VUNC는 서울지역에서 좀 더 많이 들었으나 전국적인 청취율은 낮은 편이었다.

전국적으로는 VUNC 청취율이 낮았지만, 다음 조사결과와 같이 VUNC를 청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1968년 8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주한 미국공보원이 서울, 부산, 광주, 대구의 수용자 집단(언론출판 영화계 지도자, 대학 교수, 정부 관리, 대학생, 시민단체 지도자, 전문가, 중등교사, 작가 및 예술가 집단) 1,6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조사에서 VUNC와 관련한 조사결과는 <표 9>와 같았다(장영민, 2007, 159~160쪽).<sup>41</sup>

1960년대 중반 한국의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미디어 이용 및 접촉 조사에서 VUNC 관련 응답내용은 <표 10>과 같았다(장영민, 2007, 166쪽).<sup>42</sup>

<sup>41</sup> International Research Associates, Far East, 1969년 1월, p. 147.

<sup>42</sup> Survey of Korean Elites' Consciousness on Socio-Cultural Factors – Mediakor Tabulations



표 10. 한국 엘리트집단의 VUNC 청취양상(1960년대)

지난달에 들은 특수 라디오 방송	AFKN 34%, VOA 32%, VUNC 26%, 일본 방송 15%, 무응답 35%
VUNC 청취빈도	일주일에 1~2회 36%, 3~4회 27%, 거의 매일 14%
VUNC에서 듣는 프로그램	뉴스 43%, 음악 31%, 기타 20%

이와 같이 남한의 경우 VUNC 청취는 전문가나 각 분야의 엘리트와 젊은이들 가운데 거의 매일 듣는 사람들이 14%, 일주일에 3~4회 이상 듣는 사람이 27%였다. 이런 청취양상은 VUNC가 목표로 설정한 남한 대상 수용자의 범위와 대부분 일치한다는 점에서 남한을 대상으로 한 VUNC의 방송 목표는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VUNC는 한국 젊은이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우수 대학 방송반에 장학금을 지원해 대학방송 발전에 도움을 준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방송』, 1965. 3. 11. 2쪽; 1965. 10. 30. 2쪽). 장학금은 년 2회 제공했는데, 1회분이 500달러였다(한국방송연감편찬위원회편, 1966, 17쪽). 1965년 1인당 국민소득이 105달러였던 한국사회에서 1년에 두 차례 500달러 지원은 대학방송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1960년대 후반 VUNC의 프로그램으로 국내 10여개 대학의 학생들이 방송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 시간>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가운데는 후에 국내 방송국에서 중견 직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자유의 벚』, 1971년 12월호, 25쪽).

VUNC 청취와 관련 남한 청취자를 대상으로 1967년 11월 실시한 우편조사에서 회신한 응답자 210명의 응답내용은 남한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VUNC를 청취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준다.<sup>43</sup>

Korea, 1968, International Research Associates, Records of Research Projects, East Asia, 1964-73(Entry 1017, Box 50). p. 201.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젊은이들로 83.8%(176명)가 29세 미만이었다. 50.5%(105명)는 대학 또는 고등학생이었고, 주부도 8.1%(17명)를 차지했다. 응답 지역의 87.1%(183명)가 서울, 8%(17명)가 경기도지역으로 95.1%가 서울 및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지역이었다. 또한 응답자의 76.7%(161명)가 2년 이상 VUNC를 청취한 고정 청취자들이었다. 많은 청취자들이 뉴스나 특집프로그램보다는 음악이나 영어교육방송을 듣는다고 응답했다. 46.2%(97명)은 22시에서 23시 사이에, 31.0%(65명)은 17시에서 01시 사이에 청취했다. 주부들은 평균 매일 5시간 이상, 대학생들은 평균 거의 4시간정도를 듣는 중청취자들(heavy listeners)이었다. 이런 청취경향으로 볼 때, 1967년의 시점에서 VUNC는 심리전 방송의 역할보다는 대중음악과 클래식음악 감상이나 영어교육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1960년대 후반의 시점에서 VUNC의 폐쇄문제가 구체화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이 조사에서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40%이상이 응답한 프로그램

표 11. 남한청취자가 즐겨 듣는 VUNC 프로그램 (단위: %)

대중음악#1 (한국 대중음악)	71,4%
영어강좌프로그램	60,5
대중음악#3 (부드러운 음악)	54,3
국제뉴스	49,5
퍼스트쇼 (서양 대중음악)	48,6
음악의 향연 (클래식음악)	47,6
학생프로그램	45,7
가벼운 클래식음악	45,2

43 Mail Survey of VUNC Listeners, Department of The Army Headquarters, 7th Psychological Operations Group, APO 96248(RG 338 Box1, 201-31(VUNC). pp. 1~15.

은 <표 11>과 같았다. 한국의 대중음악, 영어강좌, 국제뉴스, 퍼스트쇼(서양 대중음악), 음악의 향연(클래식음악) 등 음악, 영어강좌, 국제뉴스 등의 프로그램들을 즐겨들은 것이다. 이런 경향은 음악과 뉴스 프로그램 청취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표 9>와 <표 10>의 결과와도 유사하다. 이와 같이 음악방송에 대한 인기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심리전 평가팀은 음악프로그램을 심리전 목적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sup>44</sup>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모든 음악프로그램에 심리전 메시지를 전달하는 1, 2개의 안내방송(spot announcement)을 포함하고, 30분 이상 계속되는 음악 프로그램 중간에 5분 뉴스, 뉴스해설이나 특집 프로그램(feature program)을 삽입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한편 VUNC의 수신상태의 경우 한국에서 1950년대는 VUNC의 수신 상태가 좋은 편이 아니었으나, 1960년대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서는 명확하게 들렸던 것으로 보인다. 1958년 KBS 방송문화연구실의 청취조사(전국 교사 580명 답변)에 의하면, VUNC 수신상태가 아주 명확 11.2%, 상당히 명확 17.3%, 때때로 명확 12.8%, 불명 6.1%, 잡음이 많음 4.1%로, 아주 또는 상당히 명확하다는 답변이 28.5%로 낮은 편이었다(방송문화연구실, 1958, 53쪽).<sup>45</sup> 앞에서 살펴본 1967년 남한 청취자 조사에서 210명의 응답자들은 60% 이상이 서울기지국 주파수 1100KC(5KW 중파송신기 이용)을 통해 방송을 들었고, 48명은 철원의 VUNC “B”의 주파수 1240kc(5KW 중파송신기 이용), 13명은 강화도의 VUNC “A”(50KW 중파송신기 이용)의 주파수 1270kc을 통해 수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46</sup> 서울거주 21명은 단파로 VUNC를 청취했다. 서울의 청취자들은 1100KC의 방송이 가장 분명하게 잘 들린다고 응답한 반면, 지방

<sup>44</sup> 위의 자료, p. 7.

<sup>45</sup> 이 조사에서 VOA 한국어방송은 아주 또는 상당히 명확하다는 응답이 41.6%로 VUNC보다 수신상태가 좋았다.

<sup>46</sup> Mail Survey of VUNC Listeners, Department of The Army Headquarters, 7th Psychological Operations Group, APO 96248(RG 338 Box1, 201-31(VUNC), p. 4.

청취자들은 이 주파수가 저녁시간대에 명쾌하게 듣기 어렵다고 했다. 응답자들의 20% 이상이 가장 듣기 좋은 시간대는 22시에서 05시였다. VUNC의 수신상태와 관련, 세계 각국의 라디오 수신자들이 보낸 우편내용에 의하면 VUNC는 세계 각국에서 수신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sup>47</sup>

VUNC의 서양 대중음악 프로그램인 〈퍼스트 쇼(First Show)〉는 매일 저녁 5시부터 1시간 동안(반복 밤 7시, 새벽 1시) 당시 미국에서 유행하는 최신 팝송을 방송하는 프로그램으로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었다(『경향신문』, 1967. 5. 27. 8). 1964년 동아방송 아나운서 출신 유명 옥을 섭외하고 AFKN(주한미군방송)의 지원을 받아 진행함으로써, 최신 곡을 들을 수 있는 팝 프로그램으로 마니아들의 절대적인 호응을 얻었다는 것이다. 〈음악의 향연〉이라는 이름으로 방송된 서양 클래식음악 프

**47** 참고자료로 VUNC의 세계 각국 수신 상황을 소개한다. VUNC 수신보고 우편물 가운데 국적과 수신감도를 정확히 기재한 203건의 수신보고 현황을 정리한 것이 다음 <표>이다.

<표> 세계 수신자들이 보낸 VUNC 수신 보고 현황 (1967~1970)

	미국	일본	유럽			대양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	북유럽	기타 유럽		
수신보고우편(건)	33	40	12	72	21	24	1
평균 수신감도	3.30	3.55	3.33	2.65	2.71	3.17	3.00

이 표에서 보듯 국적으로는 일본이 가장 많았고, 북유럽 3국도 활발하게 수신보고를 보내 전체 72건(스웨덴 36건, 핀란드 33건, 노르웨이 3건)이었다. 미국에서 보낸 수신보고는 33건이었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수신보고가 있었다. 이들은 VUNC라는 시그널을 통해 이 방송이 VUNC 방송임을 알았는데, 이들 가운데 일본인들은 대부분 사용언어가 한국어라고 답변했다. 그 외의 국가 수신자들은 사용언어를 한국어로 추정할 사례들이 있으나, 아시아 국가의 언어일 것으로 짐작한 경우가 많았다. 수신시간은 대체로 30분 내외였다. 평균수신감도는 5점 척도로 기입한 감도(SINPO) S(Signal Strength) 신호강도, I(Interference) 간섭, N(Noise) 노이즈(잡음), P(Propagation Disturbance) 전파외란, O(Overall Merit) 종합점수) 가운데 종합 점수를 평균 낸 것이다. 수신감도는 일본이 보통보다 양호한 정도였고, 미국과 영국, 대양주(오스트레일리아 17건, 뉴질랜드 7건)도 보통 정도로 수신이 가능했다. 수신감도가 보통이하인 북유럽에서 수신보고를 많이 보냈다(Reception Report, 206-05 "Radio Set"(68) (HQ US Army Ryukyu Islands) 7th PSYOP Group 64-71 (RG550 Box 1); 206-05 VUNC Listeners(69)(RG550 Box 13); 206-05 VUNC Listeners(70) (RG550 Box 14).

로그램은 1956년부터 1971년까지 약 15년간 계속되었다(위진록, 1979, 121~122쪽). 이 프로그램의 해설과 진행을 담당했던 위진록 아나운서에 의하면 6·25 전쟁 후 한국은 ‘레코드’가 매우 귀해 KBS도 외국에서 새로 나오는 ‘레코드’를 제대로 입수하지 못하던 시절이었는데, VUNC에는 AFKN에서 매주 새로 제작된 클래식 레코드를 서너 장씩 우송해와 그 레코드와 자신이 갖고 있던 LP판에서 선곡한 음악을 해설하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한다(위진록, 2013, 260쪽).

이 프로그램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들었던 청년도 있었고(위진록, 1979, 121쪽), 여고시절 음악선생님이 들으라고 권해 들은 사람, 그 방송 듣느라 제대로 공부도 못했다는 사람도 있었다(위진록, 2013, 260~261쪽). 단순한 음악 감상 차원만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꾸준히 청취한 것이 계기가 되어 클래식음악 전문가가 된 사례도 있는 것을 보면 한국 청취자들이 접할 수 있었던 본격적인 서양 고전음악 프로그램으로서 이 프로그램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음악 평론가 이건용은 1950년대와 1960년대 VUNC에서 클래식 음악을 듣던 기억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이건용, 1986; 134~135쪽).

50년대~60년대에 음악을 즐겨 듣던 사람들 중에는 유엔군총사령부의 방송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당시에 FM방송이 있을 리 없고 전축을 가진 사람조차 별로 많지 않았으므로 몇 방송국에서 송신하는 음악 프로그램은 가난한 음악 대중들에게 귀중한 것이었다. 유엔군 총사령부의 방송은 그 중에서도 유명했던 것으로 밤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2시간 동안에 걸친 음악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에 두 시간의 음악 프로그램이란 상당히 긴 것이었다. (중략)

밤늦은 시간, 옆에 자는 사람에게 방해가 될까 봐 아주 작은 소리로 그것도 거의 이불 속에서 듣던 유엔군 총사령부 방송의 음악 프로그램의 특징은 짧은 곡을 여러 곡 편집해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긴 곡 한두 곡을 한꺼번에 내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중략) 또 재미있던 것은 이 프로그램이 몇 십일마다 한 번씩 윤회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들은 그 순서를 미리 적어 놓고 듣고 싶은

음악이 나오는 날은 미리 알고 기다리곤 했었다는 사실이다.

1968년 12월 1일에서 28일 사이에 남한 청취자들은 VUNC 3개의 음악프로그램에 대해 4,996통의 음악 신청 편지와 카드를 보내 왔다.<sup>48</sup> 또한 1969년도 유엔군사령부 달력을 요청하는 청취자들에게 제공한다는 방송에서 8,000명 이상이 달력을 신청했는데, 이것은 1968년도의 2배 이상이었다.<sup>49</sup> 이런 청취자들의 반응을 보면, 1960년대 후반 남한에서 음악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VUNC 청취자들이 적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 4. 맺음말

이상에서 한국전쟁 발발로 출현해 휴전이후에도 1971년 6월 30일까지 미군이 운영한 심리전 방송이었던 VUNC의 1960년대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 및 청취자의 청취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에서의 논의를 요약 하면서 1960년대 VUNC 방송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1960년대 VUNC 프로그램은 우선적으로 북한의 군과 엘리트 민간인을, 부차적으로 남한의 엘리트와 젊은이를 대상 수용자로 하고, 1967년 3월까지 부분적으로 중국 청취자도 대상으로 편성했다. VUNC 프로그램은 뉴스, 뉴스에 대한 해설, 음악프로그램 및 특집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프로그램은 오키나와 기지국, 일본파견대, 한국파견대의 세 군데에서 제작하여 한국파견대로 보내 서울 기지국, 강화도 및 철원에 설치한 송신기로 송출했다. 각국의 라디오 수신자들이 보낸 수신보고에

---

<sup>48</sup> Summary of PSYOP Effectiveness 2-69. 206-05 PSYOP Effectiveness Rpt. (69). Department of The Army, HQ. 7TH Psychological Operations Group (RG 550 Box 1), p. 8.

<sup>49</sup> 위의 자료, p. 8.

의하면 한반도를 주 대상지역으로 송출한 VUNC는 전 세계에서 수신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제7심리전부대 평가분석팀은 VUNC 프로그램 평가위원회를 두어 평가의견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에 반영했고, 주기적으로 청취율조사와 청취자 엽서를 통해 청취동향을 파악했다. 모든 프로그램은 심리전 방송의 목표에 따라 제작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전형적인 심리전 프로그램은 특집 프로그램들이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접한다면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사회에 대해 긍정적인고 호의적인 인식을 갖게 했을 것이다. 반면 공산주의 국가와 공산주의이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인식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프로그램 가운데 비중이 높았던 음악 프로그램은 한국의 대중음악, 서양의 대중음악과 클래식프로그램이었는데 이 프로그램들은 모두 인기가 있었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것이 서양의 대중음악과 클래식음악이다. 이런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음반가운데는 한국에서 구하기 쉽지 않은 음반이거나 최신의 음반들이 있어 프로그램 고정청취자들이 적지 않았다. 이들이 VUNC를 통해 서양 팝음악과 클래식을 꾸준히 접하면서 서양 대중음악과 고전음악에 대한 이해를 넓혀 갔고, 한국 음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원칙적으로 북한방송 이외에 자유국가의 방송청취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우선적인 청취대상자인 북한의 군과 민간인 엘리트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VUNC를 청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VUNC를 포함한 남한방송을 청취한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대해 호의적인 이미지를 형성한 사례들이 있었다. 한국의 경우 엘리트층과 젊은이들 중심으로 VUNC 청취자 집단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런 청취자 집단은 VUNC가 목표로 설정한 남한 대상 수용자의 범위와 대부분 일치한다는 점에서 남한을 대상으로 한 VUNC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방송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VUNC 프로그램 가운데 음악과 뉴스 프로그램을 더 선호했던 이들에게 VUNC는 미국의 입장과 서양음악을 이해하는 좋은 정보원이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1960년대 한국 사회

에서 VUNC는 미국의 심리전 정책과 자유민주주의 및 반공 이데올로기를 전하고, 서양 대중음악과 클래식을 보급한 방송매체였다. 1960년대 VUNC는 또한 대학방송을 지원하기도 했고, 대학생으로서 VUNC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후 한국의 방송계에서 활동하였다는 점에서 VUNC가 한국방송의 역사에도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이 거의 없는 1960년대 VUNC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 및 청취자들의 청취양상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활용한 사료에 한계가 있어 특히 VUNC의 1차적인 대상 수용자인 북한 청취자들의 청취양상에 대한 고찰이 미흡한 실정이다. 앞으로 추가적인 자료 발굴을 통해 보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주로 활용한 사료들이 미군이 작성한 문서자료이므로 심리전 방송으로서 VUNC 프로그램의 특성과 청취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시 한국의 대북 방송프로그램과 VOA 한국어방송 프로그램 및 청취양상과 비교하는 후속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명구·백미숙·최이숙(2007). '문화적 냉전'과 한국 최초의 텔레비전, HLKZ. 『한국언론학보』, 51권 5호 5~33.
- 권용립(1997). 『미국 대외정책사』. 대우학술총서인문사회과학 93. 서울: 민음사.
- 김영희(2009). 『한국사회의 미디어 출현과 수용: 1880~1980』.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영희(2009). 한국전쟁기간 미국의 대한(對韓) 방송활동: VOA 한국어방송과 VUNC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3권 2호 140~160.
- 김영희(2012). 1960년대 VUNC(유엔군총사령부방송)의 운영과 폐쇄. 『한국언론학보』, 56권 5호 244~269.
- 박명림(1998). 1950년대 한국의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역사문제연구소편.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 (72~127) 서울: 역사비평사.
- 방송문화연구실(1958). 제2차 여론조사 중간결과. 『방송』, 1958년 2월호 52~55.
- 방송조사연구실편(1965). 『방송연감 '65』. 한국방송사업협회.
- 서규석(1960/2000). 방송취취백서. 『방송』, 1960년 여름호 87~99. 『하늘을 향해 화살을 날린 뜻은』. 한울.
- 위진록(1979). 『하이! 미스터 위』. 서울: 한국광보문화연구원.
- 위진록(2013). 『고향이 어디십니까? - KBS 원로 아나운서 위진록의 고백적 기록』. 서울: 모노폴리.
- 이건용(1986). 『민족음악의 지평』. 서울: 한길사.
- 이상호(2008). 미국의 공공외교와 한미관계: 1953-1990.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장영민(2007). RG 306 미국 공보처 연구국(Office of Research) 한국관련 문서의 조사 및 해제. 국사편찬위원회. 『미국소재 한국사 자료 조사보고 V』. 107~193.
- 장영민(2008). 6·25전쟁기 '유엔군총사령부의 소리(VUNC)' 라디오 방송에 관한 고찰. 『한국근현대사연구』, 47집. 280~325.
- 정일준(2003). 미국의 냉전문화정치와 한국인 '친구 만들기': 1950, 60년대 미

공보원(USIS)의 조직과 활동을 중심으로 학술단체협의회 엮음. 『우리 학문 속의 미국』. 한울 아카데미. 21~50.

한국방송공사 편(1977). 『한국방송사』.

한국방송연감편찬위원회편(1966). 『한국방송연감 66년판』. 한국방송인협회.

一等到 梨大放送班 VUNC 제1회 學校放送獎學金. 『방송』, 1965. 3. 11. 2.

VUNC서 放送獎學金 授與. 『방송』, 1965. 10. 30. 2.

재치 있는<디스크:재카> VUNC 퍼스트:쇼의 유영옥양. 『경향신문』, 1967. 5. 27. 8.

21년 만에 문 닫는<자유의 소리>. 『조선일보』, 1971. 6. 16. 6.

北녘땅에 自由의 전파 21년 VUNC 告別방송. 『경향신문』, 1971. 7. 1. 3.

유엔군사령부방송 진실을 전해 온 20년. 『자유의 벗』, 1971년 12월호. 24~25.

여적 제니스 라디오. 『경향신문』, 1983. 2. 5. 1.

Renick, Rodcrick, Jr. (1972). *Political Communication: A Case Study of United States Propaganda in North and South Korea*. Ph.D. Dissertation, Tulane University.

井川充雄 (2002). 朝鮮戰爭におけるアメリカのプロパガンダ放送とNHK. 『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 60호. 日本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学会. 78~91.

小林聰明 (2010). 冷戦期 アジアの「電波戦争」研究序説 -朝鮮戦争休戦後のVUNC(國聯軍總司令部放送)に注目して- 『應用社會學研究』, 52호. 日本應用社會學會. 65~77.

貴志俊彦・土屋由香 (2009). 文化冷戦における米國の廣報宣傳活動とアジアへの影響. 貴志俊彦・土屋由香 編. 『文化冷戦の時代 -アメリカとアジア-』 (11~29). 東京: 國際書院.

최초 투고일 2013년 12월 30일

논문 수정일 2014년 02월 03일

게재 확정일 2014년 02월 28일

## **A b s t r a c t**

# **VUNC Programs and the Aspect of Listening in the 1960s**

**Young-Hee Kim**

Senior Researcher, Institute of Communication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production, programming and the aspect of listening of VUNC(Voice of United Nations Command) operated by U.S. Psychological Operations Group for psychological warfare in the 1960s. VUNC programs in the 1960s consisted of news, news commentaries, musics and features for the objectives of psychological warfare broadcasting. The programs produced in Okinawa base station, Japan Detachment and Korea Detachment respectively were collected to Korea Detachment and transmitted at three locations -Seoul, Ganghwa Island and Cheorwon. In North Korea, it is revealed that ordinary people as well as the military and civilian elite listened to VUNC in various ways. In South Korea, a group of listeners were formed around the elite and young people. Such a group matched up mostly with the target audience established by VUNC. VUNC must have been a good source for them to understand the United States' position and western music. Likewise, VUNC conveyed the psychological warfar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free democracy and anti-communism ideology and performed the role of dissemination of both popular and classical music of the West in the 1960s' Korean society.

**KEYWORDS** VUNC(Voice of United Nations Command) • program • programming • VUNC listeners of North & South Korea • the 1960s